

‘영혼의 나침반’

5월 17~19일 10시~13시 서빙고 본당 및 온라인(유튜브)
감정 돌봄, 정신 돌봄, 영혼 돌봄 주제로 전문가 8인의 강의

2023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이 막 오른다. 5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유튜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온누리회복축제는 요일별 주제에 따라 진행된다. 17일 ‘감정 돌봄’, 18일 ‘정신 돌봄’, 19일 ‘영혼 돌봄’이 주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돌보고, 치유하도록 돕는 전문가 8인의 강의를 이어진다.

17일에는 권수영 교수(연세대 상담코칭학과)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박상미 대표(더감감마음학교)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남은영 교수(서울여대 아동학과) ‘감정코치’를 주제로 강의한다. 배우 최강희 간증 영상도 상영한다.

18일에는 채정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의학과)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트라우마의 회복)’, 남윤영 박사(한마음정신회복예배 상담의) ‘스트레스 과잉

시대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강의한다. 사랑챔버 특순과 패널토코쇼 ‘강사와의 대답’ 등도 이어진다.

19일에는 스킷드라마 특순, 이만홍 교수(로템정신과 의원 원장) ‘자아돌봄에서 영혼돌봄으로’, 채규만 교수(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임마누엘 치유와 마음돌봄’,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고통의 치유와 영적돌봄’을 주제로 강의한다.

2023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 참가신청은 5월 14일(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쿠팡코드로 접속해서 하면 된다. 현장 참여 혹은 온라인 참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참여를 신청한 성도들에게는 회복사역본부에서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준다. 회비는 3만 원이다. 회복축제 기간에는 탁아방(36개월~초등 3학년)을 운영한다.

문의: 02-3215-3532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태아도 어린이예요!

5월 5일 ‘프로라이프 생명 축제’

프로라이프 생명 축제 ‘태아도 어린이예요!’가 5월 5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신촌 현대백화점 유폐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피켓과 주시랑공동체(베이비박스)가 주최하고, 아름다운피켓과 유튜브 포리베가 주관한다.

이번 프로라이프 생명 축제에서는 개그우먼 김선정이 사회를 보고, 이종락 목사(주시랑공동체), 오창화 대표

(한국임양가족연대), 박리현 대표(가온한부모복지협회), 강민휘 배우(다운중후군 배우), 서윤화 대표(아름다운피켓)가 5분 스피치를 한다. 성악가 강내우, 동요 가수 이서현&육에서, 워드 앤젤스, 김지우는 축하 공연을 한다. 다양한 부스 행사와 미술쇼, 레크리에이션, ‘생명 동요 무대’도 이어진다. 문의: 02-703-462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행복드림콘서트 ‘요청자 기도모임’

5월 1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

6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형도 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이하 행복드림콘서트) 요청자 기도모임이 열린다. 5월 1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선교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행복드림콘서트 신청자들은 행복드림콘서트에 올 때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꼭 써와야 한다. 행복드림콘서트 요청자 기도모임에서는 부모님을 위한 중보기도, 집회 안내, 집

회 당일 주차권 배부 등을 한다. 행복드림콘서트는 5월 8일(월)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요청자들은 행복드림콘서트에 올 때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꼭 써와야 한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 2023’ 채팅창

다음세대를 위해 ‘달려라풍당’

5월 28일까지 걷기, 달리기, 라이딩, 인라인스케이트, 등산 등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챌린지 ‘달려라풍당’이 시작됐다. 4월 29일(토)부터 5월 28일(일)까지 이어진다. 포문은 캠퍼스별로 진행되는 ‘달려라풍당데이’가 열렸다.

4월 29일(토) 서빙고, 양재(도곡), 평택, 남양주, 대전에서 ‘달려라풍당데이’를 진행했다. 양지, 수원, 강동, 인천, 부천, 영종, 세종교육관은 캠퍼스별 일정에 따라 ‘달려라풍당데이’를 실시한다(하단 표 참고).

달려라풍당 시상도 한다. 최장거리상(종목별 누적기록이 가장 높은 참가자) 5명에게 갤럭시워치5, 최고

나눔상(가장 많은 금액을 후원한 참가자) 1명 스마트TV, 차세대어린이상(달려라풍당에 참여하고 후원한 어린이 추천) 5명에게 어린이 자전거, 그룹상(1인 평균 운동거리가 가장 높은 그룹, 다수 참여 그룹, 공동체 참여 그룹 중에서 선정) 등을 시상한다.

최고나눔상의 시상품은 수상자의 이름으로 ‘풍당교회학교’에 기증한다. ‘달려라풍당데이’ 참가자 선착순 1천 5백 명에게는 기념 티셔츠를 선물한다. 자세한 사항은 CG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려라풍당’은 걷기, 러닝, 라이딩, 인라인스케이트, 등산 등 거리 측정이 가능한 운동에 참여하고, 누적된 거리만큼 다음세대를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달려라풍당’ 후원금 전액은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고고 바이블> 글로벌 버전, 키즈 콘텐츠 <우리 몸으로, 풍당!>, <바이블북: 성막 대작전> 제작과 ‘풍당교회학교’ 사역에 사용된다.

문의: 02-796-2243

/ 홍하영 기자

캠퍼스별 ‘달려라풍당데이’

캠퍼스	행사 일시	장소
양지	5/6(토) 14:00~16:00	마장산책로
수원	5/13(토) 14:00~18:00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강동	5/13(토) 10:30~13:00	올림픽공원
인천	5/13(토) 11:00~13:00	송도글로벌파크
부천(등산)	5/13(토) 10:00~13:00	인천 월미산
영종	5/13(토) 16:00~18:00	씨사이드파크
세종교육관	5/13(토) 10:00~12:00	금강보행교
부천(라이딩)	5/20(토) 10:00~13:00	한강 아라뱃길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24~29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세상의 신비에 대해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가 잠든 것처럼 쉽고 조용하게 믿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의심과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많은 의심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확실하다고 믿는 인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의심의 습성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 그들보다 낮은 차원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 우리가 모두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보다 높은 차원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원래 과학의 발견은 그 신비를 탐구하며 발전한 것입니다. 별의 신비, 하늘의 신비를 탐구하며 천문학이 발전했습니다. 땅의 신비를 탐구하며 지질학 같은 여러 학문이 발전했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며 생물학이 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덧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아직 과학이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우주의 신비, 인간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는 경외심을 가지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과 이성도 무시하고,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생물학적 과학으로 두 개의 염색체밖에 없는 인간의 성을 자신이 느끼는 대로 규정하지는 것이 사회적 성(social gender)입니다. 과학도, 이성도, 심지어 인간의 경험도 모두 무시해 버리고 자신의 느낌이 곧 기준이 되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념은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와 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곧 기준이 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의심과 불신의 습성 때문입니다.

'도마'의 의심과 불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의심과 불신의 습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막달라 마리아 같이 가장 깊은 사랑으로 섬겼던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깊은 불신과 의심 속에 있는 제자도 찾아 주셨습니다. ‘도마’라는 제자

가 어떤 제자인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본문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이미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곤란에 빠뜨릴까를 생각하고, 죽음에 넘길까를 궁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만류할 때 도마가 나섰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했다면 우리도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셨는지를 모두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했다면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나는 떠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하니가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 어디론가 가는 것이고, 거기서 가는 길을 모른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하면 도마는 충성스럽지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상상력이 부족하고, 우직하지만 답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 소화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그 어떤 제자들보다 어려웠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 이후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잠시 불일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혼자 소화해 보려고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고 민하며 애쓰는 도마의 모습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도마의 캐릭터가 만들어 낸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신 것은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도마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오늘 본

문처럼 “내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 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창에 찢린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말은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몸에 큰 흉터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흉터가 진짜인지 한 번 만져보겠다고 하면 얼마나 무례합니까? 못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창에 찢린 허리를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못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아야 믿습니까? 창 자국에 손을 넣어보아야 합니까?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아겠다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매우 무례한 말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도마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꼭 혼자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일단 순예배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의심이 해결될 때까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엉뚱한 책을 읽고, 엉뚱한 해결책을 가지고 가다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 확실하다고 믿는 ‘도마주의’에 빠지면 충격적인 사건이나 고난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의심과 질문을 떠올리면서 공동체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믿음의 더 큰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주일에 배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주일에 꼭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의심의 늪에 빠집니다.

십자가의 상처와 흔적

도마는 혼자 외롭게 십자가의 충격을 소화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마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한 말 그대로 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못 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창에 찢린 자국에 넣어보라.”

도마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어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말을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그 말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그 표현 그대로 도마에게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가 남모르게 한 말을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너 그렇게 말했는데 나에게 해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도마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겠다”고 하는 그 발상 이면에 있는 뿌리 깊은 의심의 문제를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문이 닫혔어도 들어오실 수 있고, 돌문이 막고 있어도 나오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부활이 온전하게 되지 않아서 상처가 남은 것이 아닙니다.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그 상처와 흔적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천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그 상처와 흔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를 위해서만 상처와 흔적을 남겨 두셨다가 다시 온전케 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히 그 몸에 간직하시고 남겨 두셨습니다. 그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순간 도마는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 되심으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이 증거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아야 믿겠다는 체험을 먼저 요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장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 다. 부활은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그 친구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환상을 보기 전에는 영혼이 불멸하니까 귀신이 존재할 수 없다며 믿지 않았는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이후에도 그 친구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여줬다면 무엇인가 믿어야 할 텐데 전혀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 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체험이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체험과 기적과 표적이 있었습니까? 표적이 부족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려는 불신의 죄악 때문에 어떠한 체험과 기적과 표적이 있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어떤 증거도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요, 성경이 충분한 증거요,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성도들의 변화가 충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증거가 없어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

난 증거가 있고, 그 중심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있고, 그분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증거 외에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다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만족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더 큰 체험만 추구하다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증거 그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했으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러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29절).

여러분, 참된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증거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기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에게서 체험이 따르고, 신비로운 역사가 따라오고,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원리를 발견할 때 가설을 세우고 실험합니다. 실험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가설을 왜 세웁니까?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에 실험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 정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험 이전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체험한 것만 믿겠다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도 “나는 믿습니 다”라고 말하지 “나는 압니다. 이해합니다”라고 말하

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모두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체험하는 것이지, 내가 모두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들과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주신 말씀에서 세 종류 사람을 나눴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봐야 믿는 자’가 있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벧전 1:8-9). 그들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했으나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신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누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는 진화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의 발달은 모든 생명과학의 폭발적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분자생물학이란 생명의 모든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생물학 분야를 말한다.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정보가 DNA 염기서열에 들어있다는 것의 발견과 그 정보가 어떻게 후손에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는 연구 결과들이 그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왓슨과 크릭이 1953년 <Nature>지에 발표한 ‘DNA의 분자구조’라는 논문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논문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 밝힌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유전과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지식을 제공했다. 그 공로로 두 사람은 1962년 노벨생리학상을 수상했다.

이후 프랜시스 크릭은 그동안의 지식을 종합해 1970년 <Nature>지에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Central Dogma of Molecular Biology)’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생명현상의 모든 정보는 DNA 속에 기록되어 있고, 이 DNA가 2배로 증폭되어 2개의 세포로 분열한다. 그 DNA에 기록된 정보는 RNA로 전사되고, 그 전사된 RNA 정보를 사용해 실제 기능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즉, DNA, RNA, 단백질 분자들로 전달되는 정보를 가지고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세포를 하나의 건축물에 비유하면, 전체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모아둔 책 전체를 ‘DNA’에 비유할 수 있다. 그중에서 특정 방의 문, 창문, 벽 등의 구조물의 정보가 있는 한 페이지만 복사한 청사진을 ‘mRNA’라고 할 수 있다. mRNA의 정보에 따라 만들어진 실체인 문, 창문, 벽 각각을 ‘단백질’로 비유할 수 있다. 우리 세포는 DNA 정보가 후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고, 그 정보에 따라 세포 구조물인 단백질이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한 양이 필요하다. 만일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DNA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되면 유전질환이 발생한다. 이것은 창문의 정보가 잘못되어 여단을 수 있어야 하는 창이 열 수 없는 창이 된다는 창문의 크기가 원래보다 훨씬 작아서 그 방이 요구하는 환기나 채광을 할 수 없어서 건

“구체적인 생명으로서의 요구조건은 전혀 무시한 채 간단한 물질에서 세포와 같이 아주 복잡한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수 있다는 개념을 믿게 만드는 게 진화론이다. 그러나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는 진화 가능성을 부정한다.”

축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다. 반면 DNA의 유전정보는 정상일지라도 양이 너무 많거나 적게 mRNA로 전사되거나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거나 늦게 전사되는 것도 세포 기능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방에 필요한 창문은 하나인데 10개의 창문이 그 방에 만들어져 있거나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완성되었는데 창문만 덜 만들어진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능하지 않는 창틀이 방 안에 9개가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방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건물 전체는 완성되었는데 창문은 전체 10%밖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물 전체의 정상 기능이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건축물 전체에 필요한 기능적, 구조적 요소들을 세포에서는 각각의 단백질에 비견할 수 있다.

프랜시스 크릭은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주장한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에서 생명현상에 필요한 정보는 ‘DNA → RNA → 단백질’로 흘러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생명 정보의 흐름을 위한 모든 생화학 반응은 여러 종류의 효소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단백질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DNA가 먼저인가, 단백질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이 생겨난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라는 질문과 똑같은 딜레마에 우리를 빠뜨린다. **JCVI 합성생물학팀의 연구결과는 가장 작은 생명체라도 최소한 480종의 단백질과 그 정보를 가진 480종의 유전자 DNA, 그리고 세포막과 세포소기관이라는 구조물들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게 정답일 것이다. 즉, 하나님이 생명을 있는 그대로 한꺼번에 만드셨다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무신론자이며, 진화론자인 프랜시스 크릭이 제시한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와 진화론적 생각을 가진 JCVI 합성생물학연구팀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가장 간단한 생명체가 분명히 보여준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DNA, RNA 단백질 분자들이 최소한 480종의 단백질과 그 정보를 가진 DNA가 한꺼번에 그것도 동시에 세포라는 구조물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생명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 그중에서 한 종류의 단백질과 그 유전자가 결손 되어도 생명은 유지될 수 없다. 점진적 진화는 불가능하다.**

진화론자들이 생명의 자연발생설 근거라고 제시하는 ‘밀러와 유리의 실험’은 쓸모없는 D-형 아미노산이 몇 개 생성되었을 뿐이다. 오파린의 원시수프 가설은 생성된 물질들이 고농도로 축적된 따뜻한 웅덩이를 상상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생화학적인 반응은 세포라는 아주 작은 공간에 원료 물질이 아주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야 하고, 단백질인 효소와 이를 작동시킬 에너지(ATP)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생명으로서의 요구조건은 전혀 무시한 채 간단한 물질에서 세포와 같이 아주 복잡한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수 있다는 개념을 믿게 만드는 게 진화론이다. 그러나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는 진화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분열되고, 깨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이루기!

최형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한국로잔위원회 총무)

제4차 로잔대회(2024년 9월 22~28일 한국 개최) 주제는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 세상에 선언하자!’이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보냄 받은 세상에서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로잔언약(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로잔대회에서 발표) 5장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한다.

“복음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열방에 알리는 방법은 단순히 선포만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영역과 연관된다.

케이프타운 서약(2010년 제3차 로잔대회에서 발표) 2부 2장은 십자가 중심의 평화와 화해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와 화해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를 기원하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는 사건(요 20:19-23)은 용서와 화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13년 전 케이프타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를 이야기하던

“교회는 화해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상황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치관 붕괴로 인한 윤리 도덕의 붕괴, 사회구조의 급격한 몰락,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위기 등 하나님의 창조세계 회복과 화해와 평화를 위한 복음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교회는 모든 사회와 문화에 내포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긍정적 증거’ 뿐 아니라 폭력과 동성애, 인종차별주의와 전체주의 같은 ‘죄의 표지들’에 대한 비판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변영 복음이 낳은 극단적 소비주의를 극복하고, 단순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대항문화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생태계 위기는 빈곤과 억압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개인과 사회문화, 창조세계의 고통과 신음을 인식하고 이 땅을 포함해 모든 창조영역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창조세계와의 관계 회복은 없다. 인류의 희망도 없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의 출발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수행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unity)를 요구하고, 복음은 불의로 만연한 세속적 세계관에 도전해 제기하며, 사회문화적 상황에 성육신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할 것을 요청한다. 공적 영역에서 발휘되는 제자도 없는 복음 전도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급진적 순종 없는 부흥이나 성장은 매우 위험하다. 교회는 화해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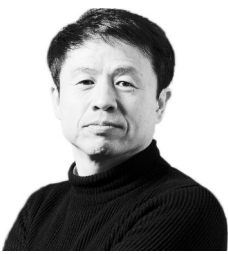
이단·사이비 OUT! 4. 통일교와 JMS

교주가 재림주?

‘통일교’와 ‘JMS’가 주장하는 헛소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파장이 거세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현혹하는 4개의 사이비 종교(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실체와 피해를 다뤘다. 다큐멘터리에 나오지 않은 다른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폐단으로 인한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 이에 온누리신문에서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연재 ‘이단·사이비 OUT!’ 지면을 마련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점과 그 대처법을 설명한다. 네 번째 순서는 ‘통일교’와 ‘JMS’다.

/ 편집자 주



탁지원 소장
(월간 현대종교 대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는 문선명 사망 이후 후계 문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인 한학자와 아들 문형진이 서로 자신이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법적 싸움이 진행 중이다. 한학자는 자신을 6천 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로 주장하고, 문형진은 한학자를 음녀, 사탄의 핏줄이라고 비난하며 불안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과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통일교를 이야기할 때 교주 문선명을 빼놓을 수 없다. 문선명은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 기독교 가정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문 씨는 학생 시절부터 신비주의적인 체험에 열광했다. 16세 되던 1936년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1946년 경기도 과주에 있던 김백문의 이스와 엘수도원을 찾아가 그 밑에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월북해 평양에서 신비주의 운동을 하다가 ‘사회질서혼란혐의(혼음)’로 구속됐다. 또 본처를 두고 여신도 김모 씨와 결혼식을 거행해 ‘간음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14후보 때 부산에 내려온 문선명은 자신을 따르던 몇몇 신도와 1951년 부산에서 통일교회를 창설해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1954년 서울에 올라온 문선명은 성동구 북학동 초가집에 통일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전도 활동을 했다. 1955년에는 기관지 〈성화〉를 창간했다. 같은 해 ‘사회질서혼란 및 풍기문란 혐의’로 경찰에 다시 구속됐다. 출감 이후 지금의 용산구 청파동으로 본부를 이전해 본격적인 포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1958년 초부터 해외 선교를 전개해 교세를 확장했다. 1965년 〈원리해설〉을 출판했고, 이후 〈원리해설〉 자체의 허점을 보완해 〈원리강론〉을 출판했다.

통일교는 성서를 구약, 신약, 성약으로 구분하는데 이 성약서가 통일교 교리서인 〈원리강론〉이다. 핵심적인 주요 교리는 타락론과 복귀론(구원론)이다. 〈원리강론〉은 통일교의 독자



왼쪽부터 통일교 창시자故 문선명, 문선명 아들 문형진(생추어리처치), JMS 정명석 교주.

적인 교리체계라기보다 김백문의 〈기독교근본원리〉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들은 사탄과 영적 간음한 하와를 강조한다. 통일교 〈원리강론〉에서는 선악과 사건(창 2:17)을 놓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와는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혈통을 번식해 죄악의 사회를 이루었다. 따라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탄을 중심한 사랑에 의하여 서로 혈연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하와가 미완성기에서 천상장과 불륜한 혈연관계를 맺은 이후 다시 아담과 부부의 관계를 맺었기에 아담 역시 미완성기에서 타락되었다. 즉, 하와가 사탄과 더불어 불륜한 음행관계를 가짐으로써 미완성기에 사탄의 혈통을 받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역시 미완성기에 있는 아담과 육적 혈연을 맺음으로 아담 또한 사탄의 더러운 혈통을 이어받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혈통을 받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인류는 자손 대대로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 원죄가 있는 악인들이며, 악인들로 구성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악의 주권이 지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원죄 없는 선한 자녀로 형성된 사위기대를 완성해 지상천국을 이루고, 창조 이상세계를 이루고 죽은 후에는 천상천국을 건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예수의 육적 구속사업의 실패를 주장한다. 통일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 예수의 구속사업은 영적인 면에서만 완성됐고, 육적인 면에서는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와 조금도 다른 없는 인간이었고, 또 부활 이후 영계에 있어서도 제자들하고 다르없이 영인체로



계신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또 사탄에 몰려 십자가에 달리는 등의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해 그를 십자가에 내주었으므로 그의 육신은 사탄의 침범을 당해 살해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에 사탄의 침범을 당한 예수님을 믿어 그와 한 몸을 이룬 신도들의 육신도 그대로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된 것이다. 아무리 독실한 신앙자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는 육적 구원이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방의 재림주 문선명을 주장한다. 통일교는 재림할 메시아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재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동방의 해 돋는 나라(계 7:2)에 재림주가 임한다는 성서의 기록을 인용해 “그 해 돋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은 대대로 천조대신을 숭배해온 나라이고, 전체주의국가로서 재림기를 당했고, 중국은 공산화해 온 나라이다. 그렇기에 이 두 나라는 사탄 편인 국가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방의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한국에 재림할 재림주는 누구일까? 〈원리강론〉 총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 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라고 주장한다. 문선명이 한국에 재림한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의 주장에 대해 한국 기독교 교단들은 이단, 사이비로 결의했다.

국내 통일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210여 교회와 있다. 문형진(전 통일교 세계회장) 씨는 2011년 1월 18일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국내 신도 수가 2010년 말

1만 9천명이라고 밝혔다(이후 알려진 바 없음). 통일교는 용산구민회관을 매입하고, 천복궁교회를 건립했다. 문선명 사망 이후 문형진이 통일교 세계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후계구도 안정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어머니 한학자가 문형진과 동등권을 주장하는 등의 문제로 갈라졌다. 이후 장녀 문선진이 세계회장으로 취임했고, 문형진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생추어리처치를 개척해 독자노선을 구축했다. 통일교는 튼튼한 기업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쉽게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명석과 ‘JMS’

최근 넷플릭스에서 많은 조명을 받은 정명석과 ‘JMS’에 대해 짧게 정리한다. 통일교 강사로도 활동하고,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JMS의 정확한 명칭은 ‘기독교복음선교회’다. 보통 JMS로 통한다. 교주 정명석의 영문 이니셜인 JMS를 ‘Jesus Morning Star’ 혹은 ‘Jesus Messiah Savior’라고 미화하고 있다. 주요 교리서는 통일교 〈원리강론〉에 영향을 받은 〈30개론〉이다. 정명석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은 재림주이며, 구세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로 위장 교회, 위장 문화센터, 위장 동아리 등으로 포교한다. 춤, 스포츠, 모델, 음악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중·고등학생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명석은 문제성 교리를 내세워 수도 없이 많은 여신도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국제경찰의 수배를 받았고, 중국에서 불잡혀 2008년 6월 한국에 송환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만기출소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중간간 등의 혐의로 지금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JMS는 ‘30개론’이라는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 보는 관’, ‘베드로와 물고기’, ‘엘리아 까마귀밥’, ‘태양이 멈추어라’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예수교대한감리회 진리축’이라는 교단명을 사용하며, 교회 이름은 보통의 교회 이름과 같기에 늘 배경까지 검증해야 한다. 〈섬리세계〉, 〈조은소리〉 등의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대학가는 JMS의 주요 활동무대이고, 위장 동아리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접근하고 있기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단, 사이비 문의 및 제보
현대종교: 031-830-4488,
mrmad@hdjongkyo.co.kr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사춘기’ 자녀와 ‘사춘기’ 아빠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두 시기를 고르라면 ‘사춘기’와 ‘사춘기’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 문제가 강하게 대두되는 때가 사춘기와 사춘기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날 때 부모 특히 아버지는 사춘기를 지낸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가정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들은 부모의 요구에 부정적이거나 반항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더이상 어린이가 아님을 나타내려 한다. 말

잘 들던 자녀가 대들기도 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독립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때 부모가 발달 과정의 주재(主宰)를 알지 못하고, 단순한 반항이라고 생각해서 자녀를 더욱 압박하거나 간섭하면 더욱 반항한다. 자녀들은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아니다. 몸은 갑작스럽게 커져서 어른이지만, 아직 사고 수준은 어린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점이다. “다 큰 녀석이 왜 그 모양이냐?”고 혼을 내다가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네가 뭘 알아. 어린 녀석이!”라고 말이다. 자녀가 어른 대접받고 싶을 때는 어린이라고 밀어내고, 어린이로 대접받고 싶을 때는 다 큰 녀석이라며 야단친다. 그래서 자녀가 더욱 정체성 혼란에 빠진다.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때는

호르몬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해 성에 대한 호기심도 늘어난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한다. 훌쩍 자라난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요즘 말하는 열짱, 몸짱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춘기 자녀에게는 격려와 지원, 관심이 필요하다. 사춘기에는 감정과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학대할 수도 있다. 부모에게 대드는 자신을 보면서 더욱 비참함을 느끼고, 미안해 하면서도 부모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무시당할 때는 더욱 반항한다. 사춘기 자녀들이 운동, 자원봉사, 영적인 헌신, 부모와 여행 등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줘야 한다.

사춘기는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자양분을 얻는 소중한 시기다. 부모의 사랑, 특히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춘기 자녀를 돌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부모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춘기의 부모 특히 아버지는 성취, 사회적 성공 여부를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그 시기는 명예퇴직 등 사회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예전과 다름을 느끼는 등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다. 아내의 한마디에 빠치기도 하고, 아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 사춘기 아버지들은 미혹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부부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이자 아내다.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와 아내의 사랑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머니의 품은 사랑, 아내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이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와 사춘기를 지나는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글그림 명남희

45. 용돈



차세대 QT 간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저는 매일 밤 잘 준비를 마치고 큐티해요. 자기 전에 큐티하는 이유는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4살 때부터 큐티를 했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가정예배로 매일 큐티를 하고 있어요. 큐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3~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살려주었어요’라는 제목이었어요. 동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발견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서 동굴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세우신 왕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

서 기억에 남았어요.

큐티하면서 가족들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처럼 매일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고 싶어요. 큐티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친구들도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 남연희 학생(서빙고 유년1부)

대전 ‘비저니어링 집회’ 차세대 참가소감

“성경을 더 열심히 읽을 거예요!”

엄마를 따라 ‘비저니어링 집회’에 참여했어요. 평소에도 성경 말씀이 많이 궁금했는데 류모세 목사님이 오셔서 ‘유대문화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를 주제로 알려주셨어요. 평소 몰랐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되고, 어

려웠던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 구유가 아니라 나귀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곤충 매뚜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쥐엄열매를 먹었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어요. 새로 알게 된 말씀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한지우 학생(대전 품평)

“성지순례 가보고 싶어요!”

엄마랑 오빠, 동생이랑 ‘비저니어링 집회’에 참여했어요. 류모세 목사님이 말씀을 재미있게 풀이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중간 중간 내주시는 퀴즈를 맞힐 수 있어서 재미있

고 뿌듯했어요. 성경을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곳들도 방문하고 싶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어요. 성경

에 나오는 곳을 직접 보고, 문화를 체험하면 신기하고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들어가는 기분일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 한지은 학생(대전 품평)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28~29일
자 본문 ‘삼하 11:14~27, 12:7~10’



1.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 한 여인을 보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들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어요. 다윗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셨나요? 다윗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나요? 말씀을 찾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을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을 했느냐? ... 중략 ... 그러니 그 ()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여기고 헛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네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삼하 12:9-10).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사역!

경제정의팀 ‘부채탈출119’ 상담사역자 모집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올라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전세보증금 포함)가 약 3천조 원으로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민 1인당 빚이 6천만 원 있는 셈이다. 4인 가구로 계산하면 2억 4천만 원이다. 빚이 없는 가구를 감안하면 한 가구당 빚이 4억 원 넘게 있는 셈이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나중에야 어찌 되든 빚을 내서라도 지금 당장 좋으면 그만인 것처럼 무턱대고 행동하는 꼴을 지적하는 말이다. 빚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빚은 절대 가볍지 않다. 빚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실감해야 한다.

빛으로부터 자유를! 이혜경 성도가 말하는 부채탈출

온누리교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며 희망과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 있다. 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의 ‘부채탈출119’ 사역(이하 부채탈출119)이다. 부채탈출119는 많은 채무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그 가정의 부채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사회적, 법적, 제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부채탈출119는 2016년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약 500여 명에게 무료 재정상담을 제공했다. 부채로부터 해방돼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채탈출119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갑작스러운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당장 병원비와 식료품 부족 등의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는 심사를 통해 ‘행복기금’이라는 긴급자금 지원을 하기도 한다.

이혜경 성도(부채탈출119 상담팀장)는 부채탈출119 상담을 하면서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한다고 했다.

“빚은 단순히 경제적인 곤란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불안도 야기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빚 독촉 전화가 오고, 압류 문자메시지를 받고,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면 정신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처음 빚질 때는 적은 금액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가 계속 쌓이고, 나중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A형제(30대)가 그 경우였습니다. 부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은 부채에 질려서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채무변제 방법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당시 A형제는 개인회생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개인파산을 진행했습니다. 개인파산하면 자신 명의의 통장도, 휴대폰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나마 건강하면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현금 받는 일을 할 텐



데, A형제는 건강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간신히 연락만 했습니다.”

반대로 빚을 완전히 탕감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B형제는 어릴 때 너무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가난에 한이 맺혀서 돈을 빨리 벌어서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의 권유로 대출받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는데, 실패하고 어마어마한 부채를 졌습니다. 수년 간 채무를 열심히 갚았지만, 한번 불어난 부채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서 의욕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B형제가 빛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온누리교회에 다시 오게 됐는데, <온누리신문>에서 ‘부채탈출119’ 참가자 모집 기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의 고백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채무 탕감도 정말 감사하지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에게도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진한 아쉬움이 남는 사연들도 있다.

“마음이 아프고 진한 아쉬움이 남는 사연자들도 있습니다. C자매는 이혼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달동네 허름한 원룸에서 살았는데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원룸에서 종일 누워만 있으니 건강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행복기금을 지원했습니다. C자매가 부채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성심성의껏 도왔는데, 그분의 삶이 진정 건강해지고 회복됐는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더 정성들여 도왔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돕는 손길이 많이 부족해서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니다.”

이혜경 상담팀장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함께 돕자고 호소했다.

“빚이 많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부채탈출119는 한 사람, 한 가정의 목숨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빚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일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선교이기도 합니다. 이 사역에 열정을 가진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오종규 팀장의 부채탈출

오종규 법무사(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장)는 부채탈출119 사역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보람 있는 사역이라고 단언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채는 삶과 생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고,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도 못 받고, 빚 때문에 월급을 압류당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또 빚을 내야 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돈에 상처 받은 사람을 방지하면 소망 없는 삶을 살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구제나 금융사역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종규 팀장도 부채탈출119에서 안타까운 경우를 정말 많이 봤다.

“D형제는 빚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몸을 다쳐서 몇 개월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카드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빚은 계속 쌓이고, 지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가지 못

하고, 병을 제때 치료 못해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E자매는 20대 시절 부모님의 사업 부도로 집안이 망했습니다. 꿈을 위해 대학원을 준비했는데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 못 다녔습니다. 빚도 상속받았습니다. 꿈을 포기한 채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적은 월급에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도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빚이 점점 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와 아픔만 남았습니다. 모두 빚으로 인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오종규 팀장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빛 때문에 극단적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아가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부채탈출119라는 귀한 사역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채탈출119사역팀’에서 상담사역자를 모집한다. 상담사역자가 되면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재정상담 양성 교육을 받고, 부채탈출119 신청자들을 상담한다. 상담 내용은 익명, 비밀유지가 원칙이다. 상담사역자는 부채탈출119 신청자(내담자)를 만나 인터뷰한 다음 상담일지 및 레포트를 작성하고, 채무 정도에 따라 채무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이후 법원 최종판결 확인, 부채상환 및 변제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등 부채를 청산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한다. 현재 부채탈출119 상담팀에는 8명의 상담사역자가 있다. 40대부터 70대까지, 전문직(법무사, 회계사)부터 회사원, 주부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직업이 다양하다. 매년 부채탈출119 신청자가 60~8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상담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의: 사회선교본부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고, 현재 생활비를 벌지 못해 막대한 상황이거나 말린 이자가 터무니없이 불어나고 있을 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라는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3~5년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회생은 파산과 달리 본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증식할 수 있고, 본인의 상황을 보다 진취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하는 조건이나 비용, 방법 등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맛있는 말씀 해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창 9:25)

과거 유럽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곳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 이러한 일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약육강식의 원칙에 따라 당연하다고 믿었다.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기독교인 일부는 제국주의 사관을 성경이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성경 기록을 인용한다(창 9:25). 슬쩍 성경을 바꿔 함의 후손 전체가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함의 후손인 흑인들이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함은 흑인의 조상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함’의 뜻이 ‘검다, 덩다’라는 의미이고, ‘함의 땅’은 아프리카 대륙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의 후손은 다양하고, 아프리카 대륙에만 살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사람이 백인, 황인, 흑인 세 인종으로 나뉜다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 인종에 따라 DNA 정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종은 없는 거라고 발표했다. 문화적으로도 피부색에 따라 인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행동이다. 피부색은 사람이 가진 다양성 중 하나다.

진화론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인류가 태양 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은 피부를 가지게 되었고, 태양 빛이 약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피부색이 희어지는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태양 빛에 의한 피부색의 변화는 유전되지 않는다. 또 인류가 이동하기 전부터 아프리카 지역에도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진화론은 피부색의 다양성도, 대륙에 따라 검은 피부색 또는 흰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사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피부색의 다양성은 이미 유전자에 존재하고 있다. 진화에 의한 게 아니다. 피부색은 주로 멜라닌세포에 의해 결정되는데, 멜라닌세포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150개가 넘는다. 유전자의 조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피부색을 가질 수 있다. 멜라닌세포에서 분비되는 멜라닌은 한 가지 색이 아니다. 검은색-갈색을 띠

는 멜라닌과 노란색-붉은색을 띠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다양성은 더 크다. 모든 유전자가 그러하듯 멜라닌세포 형성 관련 유전자에도 돌연변이가 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멜라닌세포 형성 기능이 떨어져 피부색이 하얀 쪽으로 가게 된다. 유전자의 조합과 돌연변이로 매우 다양한 피부색이 나타날 수 있다. 놀랍게도 유전자의 변화가 없지만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후생유전학적 기전도 피부색에 관여한다. 그래서 일란성쌍둥이 중 한 아이는 백인, 한 아이는 흑인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매우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살았다. 피부색이 다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소수의 가족별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 간에만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면서 피부색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된다. 피부색의 다양성이 떨어지면 피부색의 차이를 더 느끼게 되고, 피부색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결혼이 늘어나면서 자손들은

더 큰 피부색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피부색 차이가 벌어질수록 피부색에 따라 사람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피부색이 우세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라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지역적으로 유사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만 살게 된 것이다.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언어, 피부색,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고 회복을 꿈꿔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부터 백인종, 흑인종 등의 인종차별적이고, 비과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온전히 한 가족이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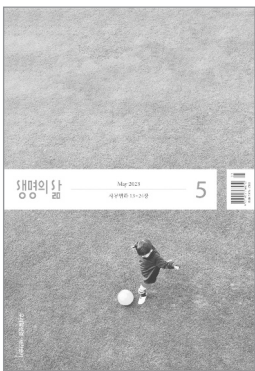


이은일 장로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어리석은 선택과 예고된 심판 성취

5월 1일~5월 7일
〈사무엘하〉 13:1~15:12



인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부모로서 자녀의 허물을 다루는 다윗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묵상하자.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해 병들자 친구 요나답이 다말을 취할 계책을 알려 준다. 암논은 왕이자 아버지인 다윗의 권위를 이용해 자기 집에 다말이 오게 한다.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다말의 간청에도 암논은 그를 억지로 범하고는 그에 대한 마음이 식어 그를 내쫓는다. 다윗은 암논의 죄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다. 2년 후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형제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만들고 부하들을 시켜 암논을 죽인다. 다윗은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살인죄를 지은 압살롬은 그날로 도망해 3년을 지낸

묵상포인트 1:

다윗 가문에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욕정으로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한다. 다윗이 그의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자 이복형제 간에 더 큰 죄악이 벌어진다. 간음죄와 살

다.

묵상포인트 2: 공의를 외면한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요압이 보낸 드고아 여인은 공의가 배제된 사랑만을 강조하며 다윗에게 내쫓긴 압살롬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한다. 결국 다윗은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 살인자 압살롬의 죄를 묵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아버지이면서 공의를 세워야 하는 왕인 다윗이 한 어리석은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죽은 아들(암논)에 대한 상한 마음이 회복되자 다윗은 도망간 아들(압살롬)을 그리워한다.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요압이 다윗에게 드고아 여인을 보낸다. 여인은 다윗 앞에서 연극을 시작한다. 자신은 두 아들을 둔 과부인데, 그중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고 이 때문에 온 집안이 살인을 저지른 아들마저 죽이려 한다면서 도와 달라고 한다. 이에 다윗은 요압을 불러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한다.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다윗은 올바른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 그를 만나 주지도 않는다.

묵상포인트 3: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다윗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된다. 압살롬은 준수한 외모와 친근한 태도로 백성의 마음을 훔치면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한다. 다윗 가문을 향한 심판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절정에 이른다. 다윗이 겪는 무거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묵상하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압살롬은 요압의 발에 불을 지르면서까지 요압을 움직여 왕을 만나고, 전차와 군사를 준비하며 반란을 도모한다. 준수한 외모와 왕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비전 제시, 그리고 친근하고 겸손한 태도로 왕에게 재판받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4년 후 그는 하나님께 한 서원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에 가겠다고 왕의 허락을 받는다. 압살롬은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 자신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알리며 반란 세력을 모은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맏아들 암논의 죄를 공의로 처리하지 않은 다윗은 한 아들의 죽음, 한 아들과의 이별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다. 부모로서 혹은 리더로서 내가 보듬을 약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살피고, 공의로 처리할 일이 무엇인지 살피자. ▶드고아 여인의 설득에 넘어간 다윗은 살인죄를 지은 압살롬을 다시 부르지만, 그에게 마땅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나는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하나님과 소원해졌다면 먼저 회개와 자리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구하자. ▶가정에서 자녀의 잘못을 방치한 적은 없는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공의를 겸비한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친구를 위해서!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큰 슬픔에 빠진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친구의 아들이 몇 년 전 희귀암 투병을 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줄 길이 없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친구는 사실 아이를 두 번 떠나보냈습니다. 한 번은 배 속에서 석 달을 품고 있다가 유산했고, 그 이후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다 보니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이마저 잃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아이를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아이를 간호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친구와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친구와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이 상처 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아무 희망 없이 지내는 친구가 살아갈 의지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닫혀버린 마음이 누그러지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hha0@onnuri.org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는 일이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먼저 질문자의 상태에 대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응원을 하고 싶다. 오늘을 살아가는 직장인 대부분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회사에 입사한 3년 이내 신입사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무려 10명 중 8명이 아직 또는 퇴사를 고려했거나 지금도 고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직장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반응일 것이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이 일과 신앙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건강한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분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창 2:10, 12, 18, 21, 25, 31)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가장 처음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하나님도 일하셨다는 것을 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창 2:15).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땅에 가득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동산을 일구고 지키라’는 일을 주셨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태초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입을 위한 직장에 그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부르신 곳이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의 자리다.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은가? 물론 그럴 수 있다.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그 원인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직장에서 하나님의 소명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골 3:23-24).

나를 위해,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 부르심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최재운 목사
(김창년부)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

역해야 한다. 또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고 하셨습니다”(창 1:28).

일하시는 분이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 가운데 운행하신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는 일과 일터는 어떤 곳인가? 단순히 개인의 성취와 경제적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행복한 부부의 조건

(상호 존중과 신뢰, 소통, 공감, 배려, 공동의 목표)

대화형 인공지능 ‘Chat GPT’에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할까? 인간이 공감할만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Chat GPT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조건들을 잘 알고 가이드를 제시해 주었다. 인공지능 Chat GPT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부부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상호 존중과 신뢰’, ‘소통’, ‘공감’, ‘서로 배려하기’, ‘공동의 목표’다. 이 대답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다시 요구한다면 또 다른 조건과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Chat GPT가 조합해서 답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 대답에 대부분 들어 있다. 이 대답을 듣고 무척 공감했다. 기계적인 답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대답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행복에 대해 각자 다양하게 해석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조건도, 추구하는 방식도 다양할 것이다. 그럼에도 부부가 행복을 느끼는 공통적인 조건들이 있다. 인공지능 Chat GPT가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다. 부부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가장 먼저 소실될 수 있는 부분이 상호 존중과 신뢰다. 더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부부는 서로를 계속 존중해 주고 신뢰해야 한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존중에 금이 가고,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더라도 다시 신뢰와 존중으로 서로를 대

하는 관계가 부부다. 존중과 신뢰에는 서로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각자의 공간과 필요 등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는 자세가 포함된다. 나에게 끼워 맞추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부부 사이에서 나올수록 존중이 사라지고, 신뢰 또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소통’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부부의 조건이다. 최근 배우자와 소통 상황을 돌아보면 부부 사랑의 온도를 평가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있는지, 그 대화는 서로를 먼저 생각해주고 들어주었는지, 대화할수록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이 있었는지를 평가해 본다면 부부의 소통이 원활하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은 투명하게 받아주고 반응하는 것이다. 대화에서 내 생각과 말을 늘 튕겨 내는 배우자와는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 주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부부는 생각과 감정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통에서 부부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공감’이다. 공감은 상대방이 느끼고 경험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의 것처럼 여겨주는 태도다. 똑같은 강도로 느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도 이해가 된다는 수준으로 표현해준다면 적절한 공감이다.

사람이 왜 마음을 표현할까를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공감받고 싶어서다. 특히 힘들고 괴로운 생각과 감정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면서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관계의 온기를 경험하게 된다. 부부는 이 작업을 해주기에 가장 최적의 관계다. 물론 공감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요소가 아니다.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건 아니다. 의지를 들어가면서 공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감해주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가족 관계에서 쌓였던 소소한 불편한 마음을 잠시 들추지 않는 성숙함도 필요하다. 무조건적 경청을 통한 공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서로의 마음이 녹을 수 있고, 따뜻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부부라면 서로를 더욱 성숙하게 ‘배려’한다. 사랑과 행복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관계다.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여야 한다. 배우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필요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져주는 자세가 행복한 부부 관계에서 나타난다. 혹여 부부 사이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는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해 본다면 도움이 된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Chat GPT의 제안 중에 특이하면서도 인상적이었던 조건이 ‘부부 공동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한 해 목표를 세워 보고, 인생의 목표를 세워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부부가 함께 노력하며 이루어가야 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행복한 부부의 조건이다. 건강한 부부는 서로가 가진 하나님의 꿈을 이뤄간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고유한 비전을 온전히 포기하고 꿈을 매몰시키는 것은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다. 부부 모두 꿈을 빛나게 이뤄가고, 부부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부부가 행복하다.

행복한 부부는 인공지능 Chat GPT가 제안한 것 정도의 수준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부부가 함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원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말씀 가운데 부부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엡 5:22-33).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 유적지’

나라와 민족사랑 ‘울산병영교회’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우리가 기억하는 울산은 대규모 공장이 많은 도시다. 수학여행 필수 코스 중 하나가 경주 유적지였고, 거기에 더해 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나 조선소를 견학했다.

그래서 울산은 공장밖에 없는 도시로 기억되었고, 일부러 울산 여행을 계획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울산은 참으로 많은 것을 품고 있다.

선사인들이 새긴 반구대암각화, 천전리암각화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고래사냥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증명해주었다.

울산은 신라왕국의 주력 항구였다. 서역인으로 추정되는 처음이 울산에 정착하고 서라벌로 들어갔다. 이란에 전하는 고대 문헌에는 ‘중국 동쪽 산이 많고, 왕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 무슬림들이 그곳 환경에 매료되어 영구 정착하곤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 왕릉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로마의 것도 많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는 동쪽 끝에 있는 신라 땅에 발을 딛지 않았겠는가? 그들이 첫발을 내린 장소가 울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선시대 울산은 일본에 개방된 삼포 중 하나였다. 고려말에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던 왜구를 대마도 정벌로 진압한 세종대왕은 그들을 위해 항구 3개를 열어 주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울산병영교회’.

중 하나가 울산 염포였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울산왜성과 기장왜성이 지금도 있는데,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였다.

울산 중구에 있는 병영성은 1417년(태종 17)에 설치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영이 있던 곳이다. 병영성 외곽 동천변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역사적인 곳인데, 그 성(城) 안에 128년 된 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1895년 을미년에 창립된 ‘울산병영교회’다. 울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다. 이 동네에 살던 이희대가 자신의 집에 호주 선교사를 초청해 예배드리게 그 시작이었다. 첫 예배에는 그의 어머니, 숙모, 동네 사람 박정아, 김본혜, 이선대가 참여하였다. 이희대는 감사예배를 드리고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았

다. 어디 말이 쉽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외국인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을에 그들을 초빙한 것과 주민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 일까지 말이다. 게다가 집을 기쁜 마음으로 내놓은 일을 이웃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향유옥함을 깨뜨린 기쁨이 아니었으면 가당키나 했을까 싶다. 이희대가 어디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으리라. 아무튼 그렇게 울산병영교회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호주에서 파견된 앵겔, 맥켄지 선교사가 순회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 결과 1906년과 1910년 강령교회와 지당교회를 분리해 낼 정도로 부흥했다. 울산지역에 복음을 확대하는 만이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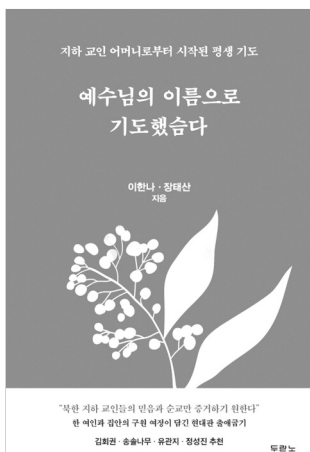
릇을 했다. 1917년 이기선 목사가 담임이 되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회로 변모해나갔다. 1920년 이기선 목사는 다른 교회로 파송되어 떠났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이 계속되었다. 이기선 목사는 훗날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투옥되어 옥고를 치러야 했다. 해방 후에는 북한에서 교회를 일으키는 데 헌신하신 분이다.

1919년 4월 5일 병영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교인 이문조, 이현우 등이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찰이 교회를 수색하고, 교인들을 검색하며 서류들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병영교회 자료들이 모두 유실되었다. 게다가 불온사상을 가진 교회로 지목되어 사찰과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 이로 인해서 교인들이 흩어지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병영교회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풍토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냈다. 한글학자 최현배, 옥수수박사 김순권, 국민가수 고복수가 병영교회 출신이다. 최현배 선생은 1894년 태어나 이 마을에서 17살까지 살았다. 그는 병영교회를 다니면서 신문을 접할 수 있었다. 훗날 서울로 가서 주시경 선생을 만나 한글 사랑을 배울 수 있었고,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키는 운동에 전력했다. 우리글을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최현배 선생의 업적이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최현배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다. 그 기념관에는 최현배 선생이 평소 사용하던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두란노 신간

지하 교인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한나, 장태산 지 | 두란노
| 14,000원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의 저자 이한나 집사는 북

한 지하 교인이었던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 4대째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과 기도, 순교의 영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한나 집사는 어린 시절 지하 교인이었던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망을 봤다. 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척을 하다가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헛기침으로 어머니에게 신호를 보냈다. ‘기도 망’을 보면서 만약에 들려서 온 가족이 잡혀가면 어쩌나 떨어야 했다. 기도 망은 37년이나 이어졌다. 고난의 행군 때는 가족들을 먹이러 장사하러 나가는 이한나 집사 대신 다섯 살이었던 셋째 딸이 외할머니의 기도 망을 대신 봤다.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위에 세워

진 신앙이 손자들에게까지 4대째 이어지고 있다.

이한나 집사는 북한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기아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수감과 고문을 견뎌야 했다. 살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한 다음에도 말로는 다하지 못할 고난을 겪었다. 술한 위협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이한나 집사 개인만의 삶이 아니다. 북한 지하 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신앙이다. 죽음의 위협을 각오하면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지하 교인들의 눈물겨운 간증이다. 북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포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겪었고, 오

늘도 여전히 겪는 아픔이자 고난이다. 그 생생한 이야기가 가감 없이 담긴 이 책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른다.

이한나 집사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북한의 기독교 박해 현실과 지하 교인의 삶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CTS, CBS, 극동방송, 오픈도어 등 여러 매체와 기관에서 북한과 지하 교인에 대해 간증했다.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내놓은 고백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지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되어 북한과 통일을 위해 부르짖는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1) 주 1회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량: 469.4kg
- 연간 나무 식재 효과: 71.1그루

2) 출발 전 주행 경로와 시간 파악
-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량: 391.4kg
- 연간 나무 식재 효과: 59.3그루

3) 보일러 사용 1시간 줄이기
-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량: 138.3kg
- 연간 나무 식재 효과: 21그루

4) 에너지 효율 높은 조명 사용
-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량: 74.9kg
- 연간 나무 식재 효과: 11.3그루

5)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량: 36.2kg
- 연간 나무 식재 효과: 5.5그루



선한울타리-열린울타리팀(보육원 아동 결연 및 지원) 봉사자와 가족들이 드림빌(보육원) 아동들과 함께하고 있다.

‘선한울타리사역’에 동참해주세요!

보육원 아동, 위기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섬김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팀에서 팀원을 모집한다. 선한울타리사역은 보육원 보호 아동, 학대와 방임으로 장기가출한 위기청소년,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섬기는 사역이다. ‘열린울타리’ 팀과 ‘푸른울타리’ 팀으로 나눠 사역하고 있다. 열린울타리팀은 보육원 아동들과 결연하고, 매월 가정체험 등을 통해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푸른울타리팀은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건강한 자립을 돕고 있다.

2022년 6월부터 화곡동 쉼터에서 자립준비청년 1명, 위기 청년 5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강남드림빌(보육원) 아동들과 일대일 결연하고 가정방문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창화 집사(선한울타리팀장)는 “상처 많은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을 온전히 도우려면 사랑으로 응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면서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에 순종할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관련기사 12면>.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4월 세례자

■서빙고

김한기 540815
신재혁 891020
이정희 650225
임미현 841106
정국진 521201
정현선 941206
조원석 830905

유아

김이든 220409
김진웅 이수경
박재하 220124
박성민 정윤아
박주하 220124
박성민 정윤아
송조이 210321
송인수 김진실
신이안 220403
신재혁 윤다솔
예태오 211102
예상국 이윤주

윤이레 221203
윤동운 박지선
장유이 220725
장지원 강민주
장재이 220725
장지원 강민주
정진유 210506
정기선 정현선
정창주 220927
정기선 정현선

■양재

김효신 850122
박원준 830219
이진의 820420
전은경 800915
천은주 770720

입교

김동연 950402
이유나 950418

유아

강태오 221011
강희준 안 솔

고세아 210610
고동준 정혜진
류하민 220308
류승완 김민지
오세원 210322
오정현 이혜솔
이루하 220827
이형건 장정은
이제희 210404
이상화 옥채라
이하이 220627
이상인 배한나
정이든 200702
정동훈 김현정
정광강 230114
정동훈 김현정
최은유 220117
최현영 김희경
한서진 190222
한정호 김주영

■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안혜련 930901
장영준 920202

입교

최유나 910711
허가연 890721

하늘

김은미 960522

입교

김혜안 040426
최이지 000923

허브

강채윤 040301
배현준 000710

입교

김다정 951011
김민기 030312

파키스탄국제대학(PGI) 자비량 교수 모집

수학, 통계학, IT, 경영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파키스탄국제대학(Pakistan Global Institute)에서 자비량 교수를 모집한다. 분야는 수학, 통계학, IT(정보통신학과), 경영학 전공 교수(박사학위 소지자)다. 파키스탄을 비롯해 페르시아와 중동 인재 육성에 뜻이 있는 성도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업무와 강의는 영어로 한다.

정세진 집사(송파B공동체, PGI발

전회 이사장)는 “학교가 개교하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후원자, 기관, 교회에 감사하다”면서 “구한말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 덕분에 대한민국의 신앙과 의술, 교육이 발전한 것처럼 선교사의 마음으로 파키스탄과 중동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10-8201-7565

젊은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6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젊은부부학교 5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과천 로고스센터(1주차),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2주차), 두란노홀(3~4주차)에서 진행된다. 결혼 12년 차 이하 선착순 40가정이 그 대상이다. 수강신청은 아

이스쿨 또는 젊은부부학교 카카오톡 채널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20만 원. 5월 12일까지 입금하면 회비 2만 원을 할인해 준다.

문의: 010-2742-2397(남편)

010-8632-6183(아내)

‘내려놓음과 리더십’

‘내려놓음’과 ‘하나님을 누리며 만족하는 삶’을 경험하도록 돕는 ‘내려놓음과 리더십’ 바로수강 세미나가 열린다. 이용규 선교사(내려놓음 저자)가 진정한 내려놓음의 의미와 공동체의 리더로 성장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내려놓

음과 리더십’,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하고, 회비를 입금하면 30일 이내에 강의를 바로 수강할 수 있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2-2078-3456

말씀과 기도, 예배로 충전!

5월 5~14일 대학청년부 공동체별 수련회

청년들의 영성을 말씀과 기도, 예배로 충전해줄 ‘5월 대학청년부 수련회’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5월 5~7일에는 허브대학부와 CHPLUS청년부 수련회가 열린다. 허브대학부 수련회는 ‘Original Design’을 주제로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진행된다. 강부호 목사, 이서진 목사, 최영환 대표, 임사라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CHPLUS청년부 수련회는 ‘Desire’를 주제로 동신기도원에서 한다. 이우람 목사가 설교한다.

5월 12~14일에는 하늘대학부, Pole2대학부 수련회가 있다. 하늘대학

부 수련회는 ‘Spotlight’를 주제로 소망수양관에서 막 오른다. 임사라 선교사, 김숙경 소장, 이서진 목사, 홍성주 선교사, 최종현 목사가 강의한다. Pole2대학부 수련회는 ‘STIGMA(스티그마, 흔적)’를 주제로 대학로 이룸에서 한다. 최성민 목사, 이서진 목사, 오현교 전도사, 신주용 전도사가 말씀을 선포한다.

대학청년부 상반기 수련회는 4월과 5월 공동체별로 한다. 4월에는 W청년부, J4U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다. 이 외 대학청년부 공동체 수련회는 하반기에 한다.

문의: 02-570-7521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5월 화요성령집회 ‘흠, 스위트 흠’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5월 화요성령집회 ‘흠, 스위트 흠’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2일, 16일, 30일)과 비전홀(9일, 23일)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화요성령집회 ‘흠, 스위트 흠’에서는 5월 2일 최대홍 목사 ‘조건 없는 사랑이 머무는 곳(눅 15:11~32)’,

9일 정한호 목사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곳(룻 4:7~17)’, 16일 최성민 목사 ‘사랑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곳(벧전 3:1~7)’, 23일 최성민 목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주는 곳(창 45:1~15)’, 30일 이서진 목사 ‘기도로 자녀를 세워가는 곳(삼상 1:1~11)’을 주제로 설교한다.

/ 홍하영 기자

‘두플러스’ 1년 구독 이용권 출시

‘스마트 플랜’과 ‘프리미엄 플랜’ 20% 할인

두란노서원에서 구독형 전자책 플랫폼 ‘두플러스’ 1년 구독 이용권을 출시했다. ‘스마트 플랜’과 ‘프리미엄 플랜’ 이용권을 1년 구독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나 선교사들도 두플러스 이용이 한결 쉬워졌다.

‘스마트 플랜’은 두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QT 및 도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더욱 손쉽게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앙의 깊이를 누리고 싶은 성도들에게 추천한다. 스마트 플랜 1년 이용권은 18만 원이다. ‘프리미엄 플랜’은 스마트 플랜에 더해 묵화자, 신학생, 리더들에게 유용한 <생명의삶 PLUS>, <묵화와신학>, <그말씀>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1년 이용권 24만 원이다. 두플러스 1년 구독 이용권은 두란노서점에서 20% 할인해 준다. 문의: 02-2078-3234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5월 10일부터 오전 10시 서빙고 시온홀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5월 9일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 사회선교부 선한올타리사역



/ 오창화 집사(한강공동체, 선한올타리사역)

“착하다,
내 아들이 내 딸아”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자녀가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자녀를 태중에 품고, 또 밤잠 설치면서 18년을 키웠을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의 뜻에 온전히 따라줄 리 만무하다. 하물며 보육원에서 장기간 집단으로 자라서 세상에 나온 청년들은 오죽할까?

자립준비청년(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청년)의 현실이 팍팍하다. 지난해 보육원 퇴소 청년 3명의 극단적 선택 뉴스를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커졌다. 여러 지원(장기임대전세, 기초생활수급비, 용돈, 대학등록금 제공 등) 제도를 확충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들의 문제는 지원책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그들은 한 방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다가 홀로 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자취생활 및 관리하는 훈련이 부족해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한 자립준비청년의 자취방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집 안에 온갖 쓰레기가 쌓여있었다. 정리하는데 대형쓰레기봉투를 몇 장이나 써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유혹과 중독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게임중독, 알코올중독, 담배중독, 성중독,

관계중독, 심지어 마약중독까지 말이다. 어떤 친구는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진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청년들과의 약속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취소된다. 어려서 보육원에 들어간 아이들은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혹은 깨진 가정에서 학대와 방임으로 보육원에 들어갔기에 가정을 거부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육원에서 나온 청년들은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지 못한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대부분 보육원 퇴소청년들은 금전적 지원은 바라지만, 인간적 관계 맺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어른들의 조언을 잔소리로 판단하고 도망가 버린다. 상처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온전히 도우려면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응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길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 거룩한 값, 오랜 희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보육원 아동들과 자립준비청년들을 가슴에 품어주자. 그 귀한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착하다, 내 아들이. 내 딸아”라고 말씀하신다.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에 순종할 성도님들을 선한올타리사역에 초대한다. 문의: 02-3215-3434, 3436

■ 세례 간증



/ 정현선 성도(용산공동체)

시어머니가 일깨워주신
말씀

내가 처음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낀 것은 초등학교 때였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모태신앙 기독교인이었다. 주말마다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다. 어릴 적 엄마를 따라 종종 교회를 갔지만, 어린 마음에 친구와 주말에 만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다. 찬송가를 함께 불렀던 그때의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초등학교 이후 이사와 유학으로 인해 교회에서 멀어졌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지지 못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한눈에 서로 반한 인연,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감사하게도 신앙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다질 수 있게 도와주었다. 신앙 믿음의 뿌리는 시어머니께 있었다.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다.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품안으로 인도하셨다. 나를 온누리교회로 이끌어주셨고, 성경책을 선물해주시고, 공부법도 알려주셨다. 교회에 모이기 힘들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주일 아침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드리는 귀한 경험을 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꼭 필요한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시어머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셨다. 당신께서 자녀들을 키우며 본인 의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길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셨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인연 하나하나가 나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주셔서 길을 잃지 않게 손잡아 주셨다. 존경하는 시부모님의 며느리로,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그분 뜻 안에서 살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베풀며 커갈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장문의 성도(지구촌교회)

내게 큰 은혜이자 복음!

교회만 가면 소극적으로 바뀌는 나에게 젊은부부학교는 부담스러운 자리였다. 초등부 시절 교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교회 수련회를 가서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 나를 아껴주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수련회를 가기가 너무 싫어서 학원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속사정을 알지 못한 전도사님마저 내게 등을 돌린 이후로 교회는 싫어도 억지로 다녀야 하는 곳이 되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나는 고3 수험생활을 핑계로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어린 자녀를 봐준다고 하여 아내의 부탁으로 큰 기대 없이 젊은부부학교에 참여했다. 젊은부부학교 조장님이 호탕하게 웃으며 나를 반겨주실 때도 ‘진짜 모습이 아닐 거야’라는 의심이 들었다.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과 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런데 젊은부부학교 2주차, 3주차를 지나면서 부부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를 반성하며 나를 돌아 볼 수 있었다.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낸 세월이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깊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다음 날 아내와 또 다투었다. ‘역시 하루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내가 변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하나님이 아내를 보내주셨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는 설교 주제에 나는 눈물을 쏟고 말았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는지 깊이 반성했다.

이제 우리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 젊은부부학교는 내게 정말 큰 은혜이자 복음이었다. 나를 다시 살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젊은부부학교 스태프분들과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고, 같이 눈물 흘려준 아내 조영민 자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올해로 젊은부부학교가 3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다. 55기 학교에 많은 부부가 참여해 나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부부가 연합되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

■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조유리 성도(김포공동체)

우리는 모두 선교사!

와이미션 과정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읽고 이해했다. 체계적인 선교 기초 훈련을 받으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선교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동안 내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개인 신앙에만 중점을 두고 살았다. 그것이 얼마나 좁은 소견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복음을 열방에 전할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와이미션 과정에 참여하며 선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다. 매주 들었던 선교사님들의 귀한 강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춰두고 집중했던 교재 예습과 테스트 과제, 같은 주제로 울고 웃으며 마음을 열고 나눴던 조원들과의 나눔, 선교현장을 실제로 보는 듯 생동감이 느껴져서 도전받은 독후감 과제, 양화진 선교 묘원에 가던 날 등 가슴 먹먹해지는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

남양주M센터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을 방문했을 때도 잊지 못할 것 같다. ‘선물 포장 디자이너’라는 내 달란트를 살려 그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한창 뛰놀 아이들을 위

한 선물에 미니카를 달고 톡톡 튀는 색상의 리본으로 묶어주었다.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매를 위한 선물에는 널따란 보자기를 펼쳐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보자기 네 개 귀를 모아서 매듭지어 포장했다. 이 모든 과정이 내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조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영어로 소통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공놀이 하고, 엄마의 마음으로 아픈 자매의 아기를 돌봐주기도 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이었다. 서로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몸소 경험했다.

선교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전 통포장이나 공예를 알려주며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와이미션 과정을 통해서 선교가 먼 나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

장로칼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웅일 장로
(북누리공동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창조의 위대 하심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 하심과 사랑과 공의로 지음을 받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많은 젊은이가 참혹하게 희생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애통하며 비탄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성공과 편리함을 좇으며 시기, 질투, 음란한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진리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승리를 일상에서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실을 저희가 어찌 이해할 수 있는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

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뤄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사회의 모든 세태를 인간의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장대현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평양 대각성운동의 물결이 다시금 이 땅에 놀라운 역사로 재현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옵소서.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장래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심판의 나팔을 불며 시대의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길은 평안과 사랑이며 이 사랑은 너에게 내 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평안과 사랑이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표현을 다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사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칼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김현진 권사
(대전온누리교회)

대전온누리교회에서 지난 4월 18~20일 ‘비저니어링 집회’를 개최했다. 비저니어링 집회는 선교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사경회’다.

지난해에는 도육한 목사님과 노규석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관한 귀한 말씀을 해주셨다. 집회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았기에 다음 집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올해 비저니어링 집회에서는 류모세 목사님이 오셔서 ‘유대문화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를 제목으로 강의하신다고 하셨다. 평소 이 이스라엘의 지리와 문화에 궁금한 점이 많았기에 기대하는 마음이 정말 컸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나무가지 중에서 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셨는지, 탕자가 먹은 쥐엄나무열매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잎이 맺히지 않는다고 저주를 하셨는지 등이 궁금했다. 그 모든 궁금증이 이번 비저니어링 집회 ‘유대문화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에서 해소할 수 있었다.

류모세 목사님이 들려주신 유대문화의 식물 이야기만으로도 그동안 생소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성경 내용을 바로 알게 된 것도 있다. 세례 요한이 먹었다던 메뚜기 이야기였다.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곤충이 아니라고 하셨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을 수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주셨다. 유대 광야에는 풀이 없어서 메뚜기가 자랄 환경이 아니고, 결혼도 안 한 싱글

사역자 세례 요한이 스테미니가 풍부한 메뚜기를 먹었다면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재치 있는 설명이었다.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는 쥐엄나무열매라고 하셨다. 유대 언어와 당시 종교적 분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주셨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유대문화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는 제목이 이해가 됐다. 유대문화를 알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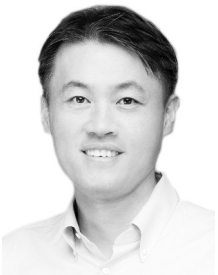
이번 집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로렘나무에 관한 말씀이었다. 로렘나무를 생각하면 웅과 평안이 떠올랐는데 전혀 다른 이해였다. 로렘나무가 사실 고난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렘나무가 고난을 뜻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오가는 알박한 믿음에서 오는 결과라는 해석이 새로웠다.

또 오랫동안 탄다는 로렘나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은 일은 로렘나무가 오래 타는 것처럼 오랜 시간 그 영향력이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행동과 말에 파수꾼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비저니어링 집회를 통해서 앞으로 성경 읽기가 더욱 재미있어질 것 같다. 유대문화에 대해 알고, 성경을 접하면 더 깊은 묵상으로 이어질 것 같다. 무엇보다 더 깊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비저니어링 집회를 마치고 오래전 했던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고백을 오랜만에 회상했다. 그 고백을 까맣게 잊고 타성에 젖어 살았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이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김승수 목사
(인천온누리교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나에게 새로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 까닭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났습니다”(고후 5:17).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지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될까?

첫째,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까닭은 과거에 있다.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 실패 때문에 오늘 절망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옛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가 못 박히고, 우리의 저주가 못 박힌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예수님 안에서 과거는 끊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

십자가, 새로운 삶의 시작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과거 그 어떤 아픔과 실패가 있었어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예수님 안에서 옛것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다시 지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실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인 동시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은 그분께 있다. 그분의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지어 가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은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언제

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다. 광야에서 방랑하던 80세 노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낙망에 빠져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도로 세워 주셨다. 예수님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셔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이다.

절망이 찾아올 때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십자가에서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됨을 기억하라. 절망의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가장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증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방 11:00 705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선교재단 사원 모집 1. 서빙고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자격: 2년제 이상, 기업회계 경력 5년 이상 2. 서빙고총무팀 사원 채용 업무: 노무, 인사관리 자격: 2년제 이상, 엑셀 능자자 우대 3. 차량관리팀 사원 채용 업무: 차량유지관리 및 45인승 운행 조건: 1종대형면허 소지자, 관련업무 3년 이상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NGO더멋진세상 채용 공고 모집: 해외사업실 기관협력사업팀 1명 업무: 본부 해외사업실 기관협력사업팀 업무 및 관리, 해외 지부 및 파트너 기관 관리, ODA 프로젝트 관리 및 신규 사업 기획 문의: 문주영 070-4402-3023 *자세한 사항은 더멋진세상 홈페이지(betterworld.or.kr) 참고 CMN 서빙고 의료데스크 의료진 모집 일시: 매주 주일 오전 9:00~오후 2:00 장소: 서빙고 본관 1층 로비(러빙핸드실 앞) 분야: 의사, 간호사, 약사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료과 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일시: 5월 14일~6월 18일 매주 주일 오후 3시~5시 30분 등록: 5월 21일 신청: 아이스쿨 회비: 5만 원 문의: 010-5217-3060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	---

부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1부 9:00, 영어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위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위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대전 O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를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중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를 / 고등부 9:00 누리를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남양주 O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방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에펠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평택 O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 14:1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어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 14:1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어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O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양지 O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에펠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에펠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개그우먼 조혜련, 박미선이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성지순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리고

유대 광야

가버나움

가이사라
빌립보

베드로
수위권교회

갈릴리
호수

갈릴리



▶ 유튜브 **CGN** 채널 검색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업로드

풍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